

Contents 가을 _ 2016 Vol. 7

04-15	교육이슈	학부모의 눈
16-19	놀이밥	놀이가 공부되는 행복한 학습 마당
20-21	마음자람	흔들리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22-23	행복배움	마곡에 그린 행복배움학교 이야기
24-27	오늘 당신이 주인공	엄마? 선생님? 둘 다 정답!
28-29	우리 동네 역사이야기	강화도 조약은 왜 맺게 되었을까?
30-31	교육위원회 소식	똑똑 교육위원회 인사드립니다
32-33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34-35	진학TIP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활용한 대입 설계 방법
36-41	학생기자단	학생기자단을 만나다
42	교육노트	학교노동인권교육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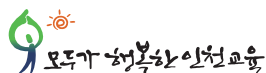
12



17



24



발행일 • 2016년 9월 30일 |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박자흥 | 기획 및 편집 • 오태환, 김진철, 어석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화 • 032)420-8125 | 편집디자인 • 웨스트코(주) 032) 423-1988 | 인쇄 • 예일문화사 032)881-
7171 | 발간등록번호 • 인천교육 2016-0049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스쿨존의 민낯, Zone의 위험률 Zero? Not yet

학부모기자 **고은영 · 길순옥 · 한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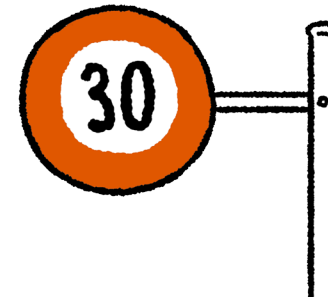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네 개의 Zone이 지정되어 있다. 스쿨존, 블루존, 레드존, 그린존이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체계다.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필요시 500m 이내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에는 신호기, 안전표시,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속물이 설치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등하교 시간에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다. 차량의 운행속도는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블루존이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안전지대로 청소년들의 활동 문화 공간이다. 반경 200~500m 이내 지역으로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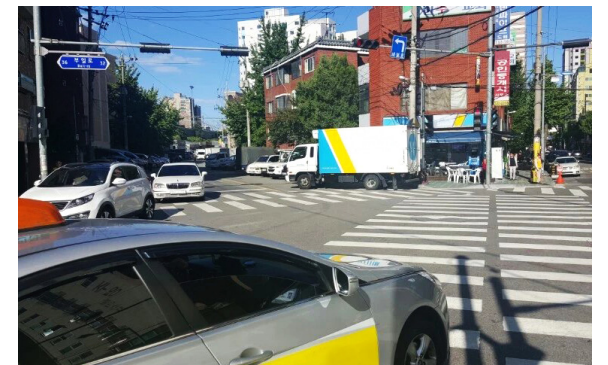
레드존이란 청소년 통행금지 지역으로 유흥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자치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정, 청소년 통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그린존이란 안전지대의 총칭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Zone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과 관리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인천시의 여러 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지워진 상태로 있으며 어떤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자체가 없다. 통학로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 시 차와 학생이 함께하는 위험한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안전지킴이의 근무실정은 열악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도 형식적이다. 이는 타 도시 학교들이 보여주는 다량의 CCTV 확보, 다양한 시설물들의 설치 및 안전 관리와 대조되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7월 인천시청 교통정책과 지정으로 총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어린이 보호 구역개선정책으로 각 군·구에 지원됐다. 시·도와 국민안전처에서 신규로 지정한 구역과 보호시설이 전혀 안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남은 예산으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구청의 담당자들이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스쿨존은 사유지로 포함된 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지정이 어려워 제한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사유지 이용 시 관내 학교의 제안서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여 스쿨존 지정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인간의 5가지 기본욕구 중 하나인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 이상 하위 개념의 욕구가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와 지진, 사고들은 우리를 위협한다.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

다양한 사고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대비는 이뤄져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학교주변의 안전 환경 조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도림교육공동체 트라이앵글의 하모니 학교·학생·가정 그 모두의 성장

●

학부모기자 김미란 · 이은정 · 주열아 · 최혜정

학교에서 놀며 배우는 자연

인천도림초등학교가 궁금했다. 행복배움학교로 동부에서는 유일한 초등학교였기 때문이다(현재는 송원초까지 2개교). 대놓은 홍보도, 자랑 삼아 내놓은 결과 발표회도 없었지만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분위기다. 자랑이라고 해도 이제는 듣고 싶었다.

8월 말 학부모 기자 4명이 도림초를 찾았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아이들의 이른 개학이 마음에 걸렸는데 도림초는 아직 방향 중이었다. 캐주얼한 차림의 김신환 교장선생님만이 작은 동물농장이 있는 연못에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우와! 메추리 처음 봐요. 저기 개구리, 개구리. 돌 옆에 개구리요.”

흔해빠진 동물들이라고 심드렁하던 찰나, 고개를 내민 그들을 발견하고 놀라서 팔짝 뛴 건 정작 엄마들이었다. 어른도 이렇게 좋은데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도림초는 우리에게 남다른 첫인상을 남겼다.



도림초엔 00이 없다

2층에 올라가 학부모회장 장혜경 학부모와 교무혁신부장 이태섭 선생님, 연구혁신안전부장 김윤희 선생님을 만났다. “네? 반장이 없대구요?”

기자단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반장이 없다니. ‘이청연 교육감의 공감토크’에서 엄마들이 주장하던 내용이 실현되는 학교가 있다니.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전교회의, 임원 엄마여야 학교 일도 할 수 있다는 무언의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대의원의회에서 학생들은 생활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키는 데 뜻을 둔다는 것이다.

“아이들 과거에는 같은 학생끼리 서로 감시하는 상하관계만이 느껴져서 그저 질서를 ‘지키는’데만 의미를 뒀고 그래서 질서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지켜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죠? 변화하는 아이들을 볼 때 보람이 가장 큼니다.”

김윤희 선생님의 말이다. 필요 없으면 좋을 것을 찾으며 가장 먼저 실천했던 일종의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의 참여는 덩으로 따라왔다. 텃밭에서 키운 배추로 아이들과 김장하는 데 학부모 120여 명이 참석한 것은 물론 학부모 동아리도 활발하다는 것. 장혜경 학부모회장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에 쌓인 신뢰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적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와 더불어 장 회장은 “행복배움학교를 떠올리면 부모님들은 성적부터 걱정하시는데 모든 체험과 활동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억지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적도 좋아져서 우려는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동학년 협의를 통해 가정과 학교, 학생, 넓게는 지역공동체까지 하나가 돼서 수업을 구성하다 보니 배움에서 즐거움과 신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 5학년의 직업체험 수업의 경우는 도림동 지역의 피자집, 중국 음식점, 네일숍, 커피숍, 공방을 직접 방문, 그곳에서 일을 배우며 노동이 단순한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을 떠나 하나의 ‘삶의 과정’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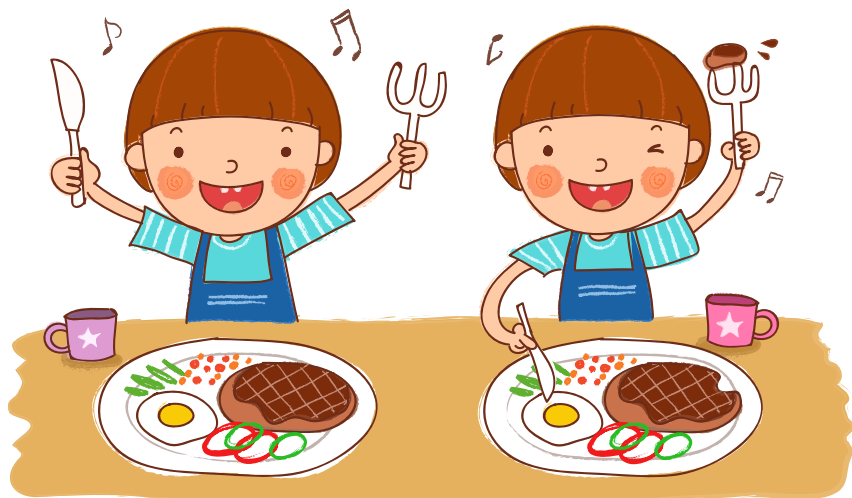


의형제로 돈독해지는 우리사이

또 학년별 공조를 통해 과학체험한마당 행사에서는 1~4학년의 활동에 6학년 학생들이 도우미교사로 나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행사를 이끌어 책임감을 배우는 계기가 돼 의미를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배움공동체의 일환으로 시작한 1학년, 6학년 마주보고 점심 먹기는 '의형제 맺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돼 외동이 많은 요즘 학생들에게 형제애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수업이나 학교축제 등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서 돈독한 학교문화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도림초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돕는 교무행정실무사를 두고 교무업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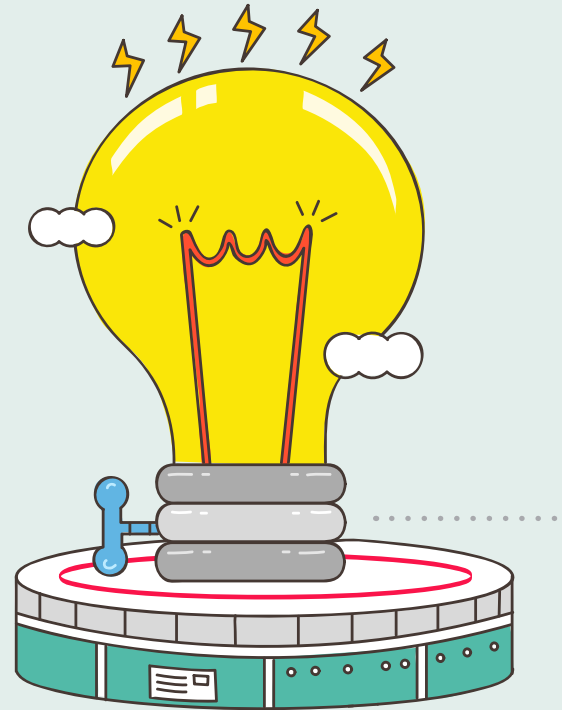
팀을 구성, 담임교사가 학생과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들은 가정과 학교가 함께 행복한 배움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공모에 나서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학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은 배움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학교와 가정이 변화하는 또 다른 기록제가 돼 주고 있는 것이다. 겨우 하루 도림초를 둘러본 정도로 감히 평가할 수도, 또 그 감동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학교가 '행복배움 학교화'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것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뭇이 중헌디?

학부모기자

이 희 영 · 이 혜 연 · 고 지 혜 · 조 선 주 · 임 은 경



상상을 초월하는 폭염에 올여름 최고 이슈는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였다. 가정마다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며 에어컨과 선풍기 켜고 끄기를 반복했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교실 안 풍경은 가정보다 나았을까?

개학 후 수 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교실은 가마솥을 방불케 했다. 적정온도를 유지하라는 교육청 공문이 몇 차례 내려왔지만 일선 학교에선 마음 편히 전기를 쓸 수 없다. 학교 역시 '요금 폭탄'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교육용 전기료는 가정용이나 산업용 전기와 산정방식이 다르다. 기본요금에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더해서 산정하는 데 기본요금은 기본 단가(kWh당 요금)에 피크전력요금(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하루 사용량)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의 비중은 약 43%, 산업용의 2배를 넘는다.

일선 학교에는 전기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사용하는데 전기사용량이 설정한 수준에 육박하면 무작위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킨다. 인천 계양구의 행정실장은 "피크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1년 내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꺼지는 것을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속사정인데 이를 모르는 학생들의 하소연과 학부모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구의 행정실장은 "학교 전기요금으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1년 동안 지출되는데 이는 학교예산의 15~20%를 차지한다"며 "예상치 못한 요금이 나오면 학습 관련 다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산한 올여름 전력 총사용량 대비 교육용 전기 요금의 단가는 kWh당 125.8원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107.4원)보다 17% 비싸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123.7원)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초·중·고가 사용하는 전력이 전체전력 수요의 0.7%에 불과한데 현재의 징벌적 요금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8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하고,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된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을 인하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육부 역시 8월까지의 전기료를 분석해 다음 달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기본료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오랫동안 묵어왔던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가 드디어 이루어질까? 교육용 전기로 인하로 아이들이 에어컨 팡팡 터지는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특혜가 주어질까?

한쪽에선 눈앞의 전기로 인하가 중국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당장 요금인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피폐해진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242개 학교와 도서관 등 교육청 산하 3개 사업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햇빛발전 민간 투자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햇빛발전시설은 관내 공립학교나 사업소 건물 옥상 유휴공간에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지지 구조물로 구성돼 세워지는데 약 457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게 하는 학습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난 7월 29일 대전시교육청도 한국전력공사와 ‘학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시내 학교에 설치할 태양광발전소 발전시설 면적은 16만 5,000㎡로 축구장 23개 넓이와 맞먹는다. 이 면적은 태양광발전설비 25MW를 설치할 수 있는 있는데 이 용량은 한 해 동안 약 3400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홍천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눈앞의 요금인하 문제뿐 아니라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에너지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3~2015년도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현황

단위 : 억

시 도 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세출 결산액		학교운영비		전기요금		세출 결산액		학교운영비		전기요금		세출 예산액		학교운영비		전기요금	
			결 산 액	세출 결산 대비	결 산 액	운영비 대비			결 산 액	세출 결산 대비	결 산 액	운영비 대비			예 산 액	세출 예산 대비	예 산 액	운영비 대비
서울	45,621	4,303	9.4%	801	18.6%		43,824	4,173	9.5%	735	17.6%		42,292	4,384	10.4%	828	18.9%	
부산	16,457	1,521	9.2%	272	17.9%		16,003	1,485	9.3%	248	16.7%		12,566	1,304	10.4%	235	18.0%	
대구	13,426	1,144	8.5%	209	18.3%		13,106	1,075	8.2%	191	17.8%		6,707	1,004	15.0%	197	19.6%	
인천	11,478	1,311	11.4%	289	22.0%		11,911	1,260	10.6%	262	20.8%		7,782	1,197	15.4%	258	21.6%	
광주	9,342	756	8.1%	164	21.7%		9,294	733	7.9%	153	20.9%		8,782	720	8.2%	174	24.2%	
대전	8,322	778	9.3%	150	19.3%		8,152	747	9.2%	138	18.5%		5,712	721	12.6%	120	16.6%	
울산	5,522	507	9.2%	117	23.1%		5,438	491	9.0%	110	22.4%		4,969	477	9.6%	95	19.9%	
세종	658	87	13.2%	19	21.8%		783	106	13.5%	25	23.6%		822	165	20.1%	49	29.7%	
경기	52,660	6,139	11.7%	1,153	18.8%		53,434	5,849	10.9%	1,070	18.3%		41,450	6,175	14.9%	1,043	16.9%	
강원	9,102	1,330	14.6%	215	16.2%		7,920	1,217	15.4%	204	16.8%		5,889	1,039	17.6%	186	17.9%	
충북	8,922	886	9.9%	198	22.3%		8,822	842	9.5%	184	21.9%		5,572	862	15.5%	208	24.1%	
충남	10,624	1,421	13.4%	262	18.4%		11,323	1,375	12.1%	236	17.2%		11,121	1,432	12.9%	257	17.9%	
전북	11,765	1,254	10.7%	260	20.7%		12,071	1,247	10.3%	238	19.1%		6,073	1,186	19.5%	263	22.2%	
전남	12,175	1,214	10.0%	251	20.7%		12,582	1,267	10.1%	239	18.9%		8,906	1,222	13.7%	223	18.2%	
경북	17,489	1,712	9.8%	314	18.3%		16,942	1,610	9.5%	295	18.3%		9,963	1,564	15.7%	274	17.5%	
경남	18,707	1,680	9.0%	333	19.8%		17,995	1,650	9.2%	309	18.7%		15,000	1,573	10.5%	340	21.6%	
제주	3,552	305	8.6%	58	19.0%		3,649	300	8.2%	52	17.3%		2,530	276	10.9%	56	20.3%	
계	255,822	26,348	10.3%	5,065	19.2%		253,249	25,427	10.0%	4,689	18.4%		196,136	25,301	12.9%	4,806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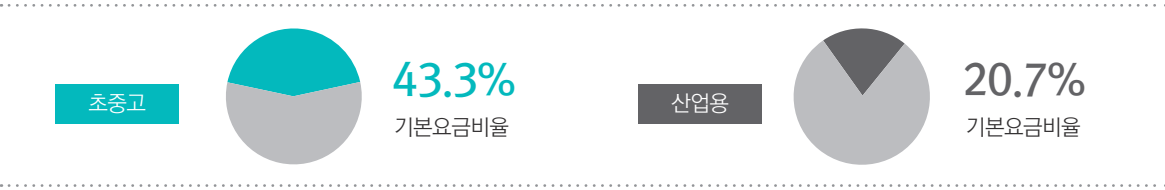
용도별 실제 요금단가 비교(2015년)

구 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국가 전체
	주택, 아파트	서비스 (유통, 금융 등)	광업, 제조업	초중고	대학,도서관, 박물관 등	계	농어업 축산	
전력사용량 (백만kWh)	65,619	103,679	273,548	3,437	4,254	7,691	15,702	483,655
〈비율〉	13.57%	21.44%	56.56%	0.71%	0.88%	1.59%	3.25%	100%
전기요금 (억원)	81,162	135,264	293,826	4,325	4,382	8,707	7,429	539,637
〈비율〉	15.04%	25.07%	54.45%	0.80%	0.81%	1.61%	1.38%	100%
실제부담단가 (원/kWh)	123.7	130.5	107.4	125.8	103	113.2	47.3	111.6
한전단가 (평균) (원/kWh)	누진제	93.5	79.7	76.6	76.6	76.6	41.1	-

용도별 기본요금 비중 비교(2015년)

구 분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국가 전체
	서비스	광업, 제조업	초중고	대학,도서관, 박물관 등	합계	농어업 축산	
총 전기요금 (억원)	135,264	293,826	4,325	4,382	8,707	7,429	453,933
전력량요금 (억원)	92,830	233,138	2,452	3,168	5,620	6,062	343,270
기본요금 (억원)	42,434	60,688	1,874	1,213	3,087	1,367	110,663
기본요금비율	31.40%	20.7%	43.3%	27.7%	35.5%	18.4%	24.4%

출처: 교육용 전기요금 관련 국회토론회자료(2016. 8. 18. 교육부)



작은 학교의 무한~도전!

학부모기자 유수연

수업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없다. 운동장엔 시계도 없다. 좌식 책상 앞의 방석이 아이들의 자리. 뛰어 놀다가도 때가 되면 모여 공부를 한다. 마을을 돌며 마을 지도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 마을의 이야기를 듣는다. 학교의 시간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흐른다. 마을은 확장된 교과서이며 마을 주민은 또 다른 선생님이 되는 곳, 양도초등학교다.



전교생 73명, 작지만 큰 학교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양도초등학교(교장 이석인)는 전교생 숫자가 서른 명을 넘지 않는, 그래서 해마다 통폐합 대상 학교로 오르내리던 아주 작은 학교였지만, 도시의 학생들의 전학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폐교 위기를 벗어난 것은 물론 마을에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린 작은 학교의 기적,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계절의 변화를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속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족처럼 소통하는 작은 학교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2011년, 양도초등학교는 과감한 시도를 시작했다. 바로 도시 학생들을 초대하여 양도 교육을 체험하게 하는 양도 계절학교였다. 봄에는 모내기기를 하고 여름에는 감자를 캐고 가을에는 망둥어 낚시를 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교사와 학생이 존중하며 생활하는 양도의 프로그램은 도시의 학생, 학부모를 매혹시켰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양도초로의 전학으로 이어졌다.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서열화 시키고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는 교육 현실에 염증을 느낀 학부모들이 양도초등학교에서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난 것이다.



성장 위주의 근대화를 거치며 잃어버린 것들

사람의 가치조차 평준화된 척도로 판단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시험 성적으로 수치화 되어 평가되었고, 그들이 지닌 개개인의 역량과 개성을 파악하는 일에 우리는 점점 무뎌져갔다. 아이들 속에 꿈틀거리는 그들만의 다양한 힘을 꺾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교육이 아닐까.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작은 시골학교. 양도초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자연과 마을이 있는 양도초등학교의 교육

단오절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겨울이면 메주를 만들어 띄운다. 봄에는 장 가르기를 하고 가을에는 급식으로 먹을 김장을 담근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학교가 주최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2박 3일 동안 걸어서 강화를 탐방하는 양도가족 도보 백리,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1박 2일 독서캠프 '책과 별과 하얀 밤'을 통해 아이들은 졸업이 끝이 아니며 학교만큼이나 마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입학이 아닌 미래의 행복이며, 혼자 열 걸음 앞서가는 것보다 여럿이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이 양도초등학교 교육의 방향이며 이러한 교육문화를 마을에서 함께 지켜내야 한다는 부모들의 공감은 인천 최초의 교육공동체인 진강산 마을교육공동체가 움트는 바탕이 되었다.

그렇다면, 양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원 선생님 대신 마을 어른들을 만나고, 태권도장 대신 동네를 뛰어다니는 것이 불안하지 않을까. 2012년, 서울에서 이주해 온 김현숙 학부모(양도초, 동광중)는 "경쟁사회에서 내 아이가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보다 이러한 교육이 아이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라는 것에 믿음이 갑니다. 양도초로 전학 온 학부모들은 대부분 같은 마음입니다."라며 양도 교육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알파고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와의 경쟁에서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시험 성적이 아닌 공동체의 힘, 집단 지성의 힘이며, 마을을 뛰어다니는 지금의 시간들이 그 힘을 키우는 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꿈과 끼를 발산하는 미래 예술인

학부모기자 **이 미 교**

쉬는 시간인가보다. 창문 너머 교실은 왁자지껄한 자유분방함이 미래 예술인 냄새를 풍긴다. 2010년 교육부 예술중점학교 공모에 선정되면서 2011년 미술중점학교로 첫발을 댔 인천예일고등학교(교장 육태화)는 한 학년 당 10개 학급 중 2개 학급 60명 정원으로 교육부와 시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미술 중점 반을 운영 중이다. 실기시험 없이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만으로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미술 실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50%가 넘는다. 고1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인천 예일고 입시율이 말해 주고 있다.

미술반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라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총 180단위 수업 중 40%에 해당하는 미술 관련 교육과정만으로 편성해 미술전공으로 대입준비 하는 학생들은 3~5시간 블록 타임과 개인별 맞춤형 진학 미술 실기 연속수업을 받으며 자기만의 꿈을 키운다.

꿈과 끼를 발산하고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 큐레이터, 도슨트 되어보기, 개성 살린 작품발표회, 1인1대회 도전하기, 예방 갤러리 개소식 및 주제별 영화 작품 전시 등 학교는 입시 미술만이



아닌 진정한 예술작품들을 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및 재능기부활동으로 거리벽화제작을 하면서 도화지에서 시멘트 벽면까지 캔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이 학교 오길 잘했다.” “그림이 많이 늘었다.” “학교가 재밌다.” 등의 학생들 말을 듣는 순간 성종실 선생님은 갑자기 울컥 하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선생님의 수고와 노력이 엿보였다. 미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하여 예술적 소양을 갖춘 미래 예술인을 양성하는 인천예일고 미술중점 반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천의 미래 미술 인재를 키우는 인천 예고

학부모기자 **서 민 경**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해 전문 예술인 육성을 주도하는 인천예술고등학교(교장 심영란) 미술반을 찾았다. 자신의 꿈을 남들보다 빨리 발견하고 키워나가고 있는 예고 미술반 친구들은 1학년에는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소묘 교육과정을 거쳐 2학년 때 전공과를 결정한다. 학생 희망에 따른 수준별 수업을 통한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실기강좌를 개설하여 실기 능력의 향상과 성취욕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교갤러리 운영과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 활동은 학생들의 창작 의욕과 자신감 회복, 비판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고 작품을 통한 감상능력을 배양시키기에 충분하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학생작품 전시회에서는 학생들의 개성과 미술학도에 한발 다가선 멋진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도교사와 전공 실기 강사들의 열정과 끊임 없는 노력으로 대입 입시에서도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예술은 대중과의 관계와 소통에서 발전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학교 건물 증축 또한 진행 중인 인천 예고는 우수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지원하는 교사의 열정이 모여 미래 예술가의 요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도약 중이다.



인성을 기초로 한 지적, 예술적, 인문학적 소양 능력을 겸비한 전문예술가로 키우는 데 온 학교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놀이가 공부가 되는 행복한 학습 마당 - 도담초 계절학교

도담초등학교 교사 정인영

학교 운동장에 자전거를 타고 온 6학년 아이들은 주차장에 주차하듯 구석부터 차곡차곡 자전거를 세우기 시작했다. 제일 막내인 1학년 아이들은 5학년 언니 오빠들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탄다며 부러움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치, 괜찮아. 우리도 오늘 물총싸움 하면 돼.” 한 녀석이 호기롭게 말한다. 물총놀이든 자전거 타기든 오늘은 신나게 노는 일만 남은 계절 학교 시작 날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학교 가는 길이 조금 더 즐겁기를 바라며 공부를 놀이처럼 해보고자 하는 도담초등학교 (교장 김기상) 계절학교를 소개한다.

여름·겨울 방학 전 3~5일 동안 실시되는 계절학교는 체험 위주의 프로젝트형 주기집중학습이다. 계절학교는 자연 생태 체험 학습, 신체 감성 활동, 진로체험 활동, 소집단 창의적 체험활동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감성 발달, 조화로운 심신, 미래의 꿈길 찾기를 목표로 한다.



계절학교 물놀이 프로그램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놀이도
꼬박꼬박 학교에서 챙겨먹을 수 있다면
학교 가는 일이 신나지 않을까.



천연염색



천연염색



페이스페인팅



여름 작물 수확하기



여름 계절학교 활동 내용

새롬스쿨 (1-2학년군)

● 생태체험학습

생태놀이,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국립생물자원관 체험활동

● 예술감성활동

냅킨아트, 클레이 만들기, 협동화 그리기

● 소집단 체험활동

빙수, 화채 만들기
호수공원 도서관

바름스쿨 (3-4학년군)

● 여름 음식 만들기

● 호수공원 야외 체험

자전거, 인라인(킥보드) 하이킹,
자연 보물찾기, 전통 야외 놀이,
페이스 페인팅

● 여름 놀이 체험

물총 싸움, 물 풍선 던지기

슬기스쿨 (5-6학년군)

● 자연생태 놀이

호수공원 자전거 하이킹
철마산 산길, 국립수목원
숲길 걷기

● 전문가에게 듣는 꿈길 이야기

다양한 직업체험,
전문가 초청 강연

● 학교야영



누구나 즐겁게 가르치고 신나게 배우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었던 때가 있던 선생님들도, 이제 어른이 될 우리
아이들도 한 때 좀 놀았던 경험이 밥이 되어 학교가 좀 더
신나는 곳으로 변하길 바란다.

아이들은 스스로 물총싸움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산책을 할 땐 풀잎을 따면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자전거타고 공원을 돌면서 시합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룻밤을 꼬박 보내며 계절학교를 즐긴다. 물을 많이 맞아서 속상한 친구, 자전거가 서툴러 발에 물집이 잡힌 친구, 촛불을 켜고 비밀이야기를 나눈 순간 눈물을 흘린 친구를 보듬는 법을 배운다. 또 늘 공부만 하던 학교에서 몇 시간씩 뛰어 놀며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특별한 것 없는 계절학교지만 모두들 한번 씩은 해봤던, 또 해보고 싶은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흔들리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부원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유재**

“

선생님,
우리 엄마 마음 좀 돌려주세요.

민수(가명, 중3)는 위클래스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대뜸 요구하듯이 소리쳤다. 아이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다. 민수의 부모님은 아빠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셨다. 이후 아빠가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재결합을 원하는데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 상담실을 찾았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줄 수는 없겠네. 엄마의 뜻을 존중해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구나.” 했더니, “상담선생님이 그런 것도 못해요! 상담선생님은 뭐든 다 해결하는 분 아닌가요!”라며 소리쳤다.

분노하듯 쏟아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평범한 가정을 바라는 아이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빠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엄마가 마음을 조금 돌리면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데 엄마가 고집을 부려 엄마 때문에 분란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며 엄마

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공부할 필요도 없으므로 공부는 포기했다면서, 엄마에게 계속 압박을 하면서 엄마와 다투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민수의 그런 마음과 소망을 공감해주었더니 민수는 “이제는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는 걸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지만 여지껏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자, 상담선생님의 조언이 귀에 들어왔던 것이리라.

“저는요, 저를 버리고 나간 우리 엄마가 나중에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침에 눈뜨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깨워주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아빠가 한 맛없는 밥을 먹으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반찬을 먹겠지’하는 생각이 들고, 혼자 학교 갈 때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잘 다녀오라고 배웅 받고 가겠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와서 웃는 아이들 보면 괜히 미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아이 보면 짜증나서 싸우게 돼요.” 옆자리의 수학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고 아예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교무

실에 앉혀 둔 현규(가명, 중2)가 수업시간마다 싸우는 이유였다. 현규의 뇌구조에는 ‘엄마의 빈자리’가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난 현규의 손을 잡고 “그렇구나, 얼마나 보고싶으면.”하면서 현규와 함께 울었다. 그 뿐이었다. 들어주면서 함께 운 것뿐이었다. 그런데 현규가 그날 이후 달라졌다. 수업태도가 좋아지고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무실에 큰소리로 인사하며 다녀가기도 했다. 그러더니 여름방학 끝나고 와서는 엄마 만났다고 활짝 웃었다. 이 학생과의 만남이 상담교사로 전직하는데 큰 용기가 되었다.

준영(가명, 중3)이는 부모의 5년 이상 지속된 불화로 공부를 포기하고 판타지 소설에 빠져 지낸다. 가정에서 소외되고 일방적인 비난 속에 위축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준영이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벅어리가 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면서 급우들이 자신에게 한 불편한 감정을 귀가하여 학급 단체 대화방에 폭발하듯 문자로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 급우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준영이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외톨이었다. 같은 반 친구가 위클래스에 의뢰하기까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던 준영이는 폭발 직전이었다. 학부모상담을 하여 준영이의 상황을 전하였더니 다행히 가정에서 관심을 보였고 변화려 노력하였다. 학교차원에서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구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더니 준영이는 점차 대화를 통한 소통방법을 회복하고 있고 친구관계도 좋아지게 되었다.

부모가 다투면 아이들은 불안을 느낀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갓난아이라도 소변검사를 하면 스트레스성분이 검출된다고 한다. 부모 불화 시 겪는 아이들의 불안은 존재의 위협에 대한 불안이다. 부모님이 다투다가 이혼하게 되면 자신이 버림받음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무의식 중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해 마음이 흔들리면 학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간다. 가정에서 억압된 감정은 학교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정 억제가 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울하며 자존감이 낮아 대인관계에 회피적이다. 짜증과 화가 늘어 사소한 다툼으로도 교우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침예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자신들의 감정싸움에 몰두하다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 심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살필 여유가 없어 그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부모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더라도, 아이에게 상처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가 여전히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며, 언제든 아이를 응원하며 지지한다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아이가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흔들리다가도 다시 뿌리를 땅에 내리고 깨끗하게 자라난다.

상담 경험이 쌓일수록 상담이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운 만큼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된다. 상담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인간은 존중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무시당할 때 괴롭다는 것이다. 무뚝뚝한 사춘기 남자 아이들이 상담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내놓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성을 다해 들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존중해주는 상담이 내담자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상담의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부족한 자신에게 상담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은 지속적인 상담치료기술 연마도 중요하지만, 역시 내담자였다. 그 내담자는 바로 마음을 다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을 나눈 아이였다. 단지 들어주었을 뿐인데 달라졌던 현규처럼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민수처럼 충분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받았다고 느끼면 다른 이의 행동을 바꾸려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수용 받는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부부갈등에 함몰되어 아이의 그런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좌절된 아이들은 준영이처럼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흔들리는 아이들을 상담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먼저 하는 기도가 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의 아픔을 눈여겨보게 해주시기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효과적인 치유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함께 견여주는 상담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해본다.



마곡에 그린 행복배움학교 이야기

● 마곡초등학교 교사 **김요섭**



학생들이 제 집 드나들 듯 다니고, 몇몇 아이들은 노크 할 줄도 모르고 편하게 오가는 곳, 바로 우리 학교 교장실의 모습이다. 우리 학교 교장실은 학생들에게 늘 개방되어 있다. 정봉남 교장선생님은 아침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교문 앞에서 등굣길의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 주신다. 전교생의 이름을 외워서 학생들을 이름으로 불러주고자 노력하시고,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위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신다.

원적산 앞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고 있는 마곡초는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학교로 학교 안팎에서 텃밭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손수 교정을 가꾸시는 것은 물론 실과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지원하는 분은 박상환 교감선생님이다. 불가피한 보결수업이 있을 때는 해당 학급 아이들과 함께하신다. 종종 이른 아침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을 손수 사다 직원을 챙기며 학교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긍정적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신다.

행복배움학교 관리자는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 변혁적, 분산형 리더십을 실천한다. 교사와 학생들을 통해 교육 안전을 추진, 관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장, 교감 또한 학교 전문가 집단의 일원으로서 교직원의 지식과 역량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위를 내세우지 않지만, 마곡 교육가족은 누구보다 두 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10여 년의 경력에 이른 지금, 나는 다시 초임 교사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매일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마곡 행복배움학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교육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현실에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

먼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교직원 회의 때는 다함께 둘러앉아 마주보며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일방적인 전달 중심의 회의를 지양하고, 사전에 안전을 상정, 취합 후 안전 중심으로 협의한다. 교장에서부터 신규 교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고, 공동의 의사결정권과 실천의 책임감을 갖는다. 학생 사이에서도 인기투표로 전략해버린 학급 회장단 선거를 대신하여 자발적인 학생자치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학교 일에 일정한 책임을 감당하며 자란다.

배움을 즐기는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해 태생된 자생적 학습모임 '마곡5樂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중심 교육과정 등의 학습을 위해 퇴근 후 교수님을 찾아가 강의를 듣고, 주말에 연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모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힘쓴다.

배려와 존중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365일 존댓말 DAY'로 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 존댓말을 쓰고 있다. 아침에 등교



하는 학생들이 일일이 안아주는 행사를 열기도 하고, 6학년 학생이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의 손을 잡고 함께 입학식에 참여하거나, 학교 행사 후 다모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활동에 대한 의견 묻고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지난 6월은 올해 새로 전입한 교사들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전교직원이 함께 '백일잔치'의 시간을 가졌는데, 의미 있는 축하곡을 부르고, 함께 떡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스승의 날에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학생과 함께 교직원의 출근길에 일일이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교직원을 맞아주시는 일은 아직도 큰 감동으로 남아 있다.



행복배움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주주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해주는 교육청,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른 학교보다 많은 일을 감당하시며 헌신하시는 본교 행정실 식구들과 실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방과후학교의 일환으로 2006년 처음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은 이제 어느 학교에서나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돌봄교실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가 많다. 맞벌이 등 생업이 바쁜 가정의 학생이 주로 참여하는데, 저녁 식사 전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과 저녁 급식 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저녁 돌봄’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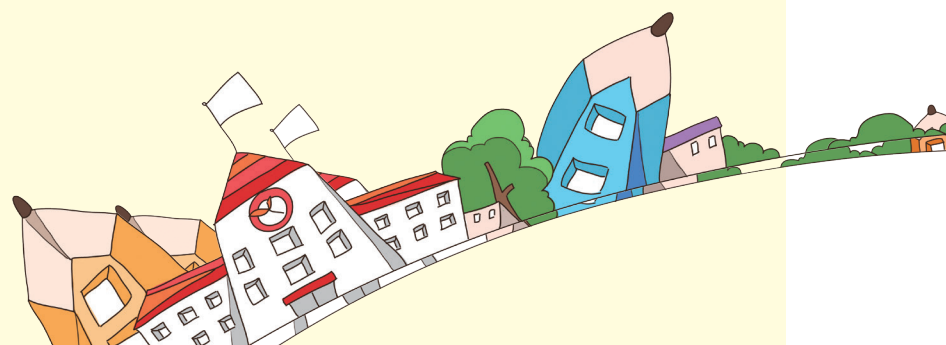
1~2학년이 주로 참여하는 돌봄교실은 매일 1개 이상의 무상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년 특성에 맞는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 중이다. 오늘은 동수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가 나선희, 박선미 두 분의 돌봄 선생님(돌봄 전담사)을 만났다.



엄마? 선생님? 둘 다 정답!

글: 교육홍보팀 교사 어석원

사진: 주무관 이예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은 정규 수업 후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학생을 돌보는 교육 제도다.



박선미 선생님이 아이들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돌봄교사를 하셨나요? 이전에 하시던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 2012년에 박선미 선생님과 같이 들어왔어요. 이전엔 복지관에서 근무했구요. 돌봄교실이 복지관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제 아이 다 키워서 신경 쓸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웃음) 귀가 지도나 출석부터 항상 신경이 곤두서요.

박: 저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어린이집보다는 체력적으로 덜 힘들지만 수업 준비나 대소변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건 똑같아요.

돌봄교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나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나요?

나: 돌봄교실은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 맞벌이 가정 자녀이긴 한데 취약계층만은 아니에요.

박: 가까운 친척이 돌봄교실을 보낸다고 하니 주변에서 말렸대요. 제가 꼭 보내라고 했어요. 저도 제 아이가 학교 가면 꼭 보내고 싶다면서요. 물론 보통 엄마가 너무 바빠 신경 덜 쓰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딸이 돌봄교실을 다닌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돌봄교실을 다시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셨어요. 막상 보내니 좋다고 주변에 이야기해주신대



나선희 선생님



박선미 선생님



이거든요. 가끔 인사도 하러 와요. 안부도 묻고 먹을 것 있으면 사탕이라도 주고요.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이로 기억되어야겠다고 다짐해요. 우리 반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이랑 지내는 시간만큼 저희랑 지내는 시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거나 아쉬운 점도 분명 있으시죠?

박: 학부모님들이 돌봄교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요. 신입생 예비교육 등 시간에 따로 소개해야 하나 싶어요. 선생님도 아닌 애매하게 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는 출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연락을 해주시는 게 당연한데 담임선생님에게만 말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없으니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일이 바쁜 것보다 서운하고 아쉽죠.

나: 행정상 힘든 건 돌봄교실의 정원이랄까 분명 물리적 제약이 있는데 나라 정책에 따라 신청하면 다 받아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덜한 편이지만 그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자연스레 다른 친구와 놀게 되는 것도 좋아요.

나: 학교 끝나고 부모님 퇴근 시간 전까지 내내 학원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죠.

박: 제가 볼 땐 돌봄교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간식도 먹고 쉬다 갈 수도 있고요. 가끔 보면 안쓰러울만큼 학원으로만 돌리기도 하거든요.

나: 돌봄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너무 퍼주나 싶기도 해요.(웃음) 이번 방학도 알차고 정신없게 보냈어요.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방학이 싫어서 체험학습도 많이 준비하고 특강이나 영화 관람도 매주 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돌봄교사 일을 하면서 느낀 보람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요?

나: 항상 제가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보람이에요. 다른 분들이 '돌봄교사가 그런 일도 하는구나.'하며 궁금해 하고 부러워하거든요.

박: 제 아이가 3살, 6살인데 초등학교를 미리 경험하고 있어요.(웃음) 우리 애가 학교 가면 뭘 지도하고 뭘 해줘야겠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 학교에서 일한 게 벌써 4년째인데 첫 해 만난 아이들이 6학년

다소 혼란이 있는 정책과 행정일지라도
아이들은 이곳에서 쉰다. 엄마의
포근함으로 안아주고 긴장도
풀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는 심터
같은 공간이다. 선생님의 친절함으로
학습이나 과제도 봐주시고 생활지도도
해주신다. 돌봄 선생님의 눈길은
오늘도 아이를 향한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환하게 자유 놀이 시간을 갖고 있다.



강화도 조약은 왜 맺게 되었을까?

● 계산여자중학교 교사 **이 제 은**



영종진 추모비

포탄맞은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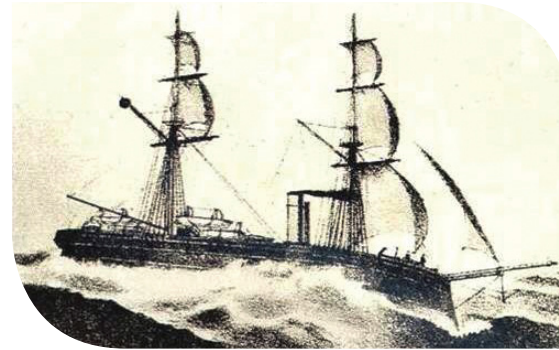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 조선과 일본 정부가 맺은 ‘조일 수호 조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용어가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이다 보니 조약이 체결된 장소의 이름을 따라 보통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가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되어 아직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초등학교생조차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역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건의 연도를 외우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연도 외우는 것을 강조하셨고 실제로 시험에도 무슨 사건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곤 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어른들로부터 역사를 들어서인지 요즘 아이들도 연도를 무조건 외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역사교사는 연도 외우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도 거의 없지요. 왜냐면 아이들이 연도 외우기에 질려서 역사를 어렵고 힘든 과목으로, 무조건 암기해야만 하는 과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 공부에서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대처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연도는 사건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건 이름 옆에 병기를 할 뿐이지 꼭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면 편리한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삼국통일(676), 임진왜란(1592), 강화도 조약(1876), 한일병합조약(1910), 해방(1945) 정도의 연도는 알아두면 공부할 때 참 편리합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에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들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예로 들면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



운요호

진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조선이 이를 통해 세계라는 험난한 정글 속으로 내던져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개항이 되었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외세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주변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이전까지 독립 왕국이었던 류큐 왕국을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었으며 타이완을 침략했습니다.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침략 정책은 여러 개혁으로 인해 불만이 높았던 사무라이 계급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요시다 쇼인은 “러시아, 미국 등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취하기 쉬운 조선과 만주, 중국을 무너뜨려 복종시킨 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고 조선 침략의 선봉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고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그들은 보통국가라고 합니다.)’로 만들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조슈 번(지금의 야마구치 현) 출신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슈 번은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였으며 일본 육군을 장악하여 이후 청·일, 러·일 전쟁과 한국의 식민지, 그리고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을 이끌어간 일본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0여 년 전 미국이 자신들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1875년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진에서 운요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부산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던 운요호는 9월 20일 강화도 초지진에 올라와 식수를 구한다는 이유로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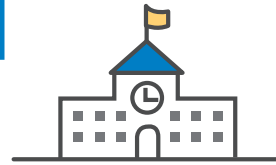
락도 없이 초지진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강화도는 서울 한양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당시 조선 어민들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연히 초지진의 병사들은 불법으로 침범한 일본 군인들을 향해 위협 포격을 가하였고, 이를 핑계로 운요호는 초지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진지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때 일본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성벽이 아직 남아 있고, 바다를 향해 서 있던 소나무는 그때의 상처를 지금까지 지닌 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초지진에 가서 꼭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침략의 흔적들이지요. 애초에 초지진을 점령하려던 일본군은 갯벌로 인해 상륙이 어렵게 되자 뱃머리를 돌려 21일 영종진으로 향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섬, 영종도의 동쪽 끝자락에 있었던 영종진은 500여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기술로 만들어진 최신식 군함인 운요호의 포격은 석축과 토성으로 만들어진 영종진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챙긴 일본군은 이후 인천을 떠나 출항지인 나가사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운요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당시 조선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나 문제 제기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이듬해인 1876년 강화도에 나타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이 조선에 있다며 통상 조약과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당시의 조선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운요호 사건의 피해자로서 당연히 일본의 잘못을 꾸짖고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상장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국제법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협상 전략에 무지했던 조선 정부는 결국 일본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강화 서문 안 연무당 터에서 지난 150년 전의 과오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배워 지금부터라도 외교와 협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과 의무가 아닐까요.

똑똑~!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인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은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은호입니다.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으로는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가을햇살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 중심, 아이들 중심”의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가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감동을 주는 교육이 아니라면 성공한 교육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위원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통제와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인성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교육 속에서 상상력과 창의력,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때 아이들 스스로의 적성과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인천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하며 선생님이 행복한, 결국 인천시민이 행복한 교육이 우리 모두의 목표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소통과 상생의 위원회로 만들어 행복 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인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던 우리 교육에서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의 키워드는 인성 교육과 진로교육입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증가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의무로 명시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고, 인천에서는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진로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됩니다.

‘교육은 그대의 머리 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인천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아이들은 늘 변화하며 성장하기에, 어른에게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인천교육 발전의 방향 설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항상 생각해야 하며, 좋은 환경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올바른 학습을 하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식중심에서 상상력과 바른 인성을 기초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성장하고, 스스로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은 다양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수평적 소통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품고 있는 씨앗을 제대로 싹 틔울 수 있는 인천교육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기계처럼 그저 지식을 암기한 아이는 무기력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생각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는 스스로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 손철운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손철운 의원입니다. 저의 오래 된 교육 철학은 교육은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생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짓는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공부 경쟁에 의한,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 의원 신영은

안녕하세요!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신영은 의원입니다.

시의원 취임 이후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2007년 사단법인 인천복지지를 설립, 직접 세운 국수 공장에서 매일 새벽 세 손으로 국수를 만들어 어려운 노인과 청소년들의 급식 해결을 위해 인천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무상 공급하는 등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최다선 4선 의원으로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정 철학을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급식 환경과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 최만용

반갑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최만용 의원입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한시라도 먼저 교육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열정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발로 뛰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께서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들을 애정을 담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들 귀담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5대 시의원 시절 추진한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은 평소 제 생각을 실현하는 사업



자율의 의지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걸어 가게 하는 법을 가르쳐야하고, 그러하기에 더욱욱 머리가 아닌 가슴을 울리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인천의 미래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교육은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이며 저도 이 책임을 다하고자 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타인,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모두 행복해 지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원 이영환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교육위 활동을 돌아보면, ‘행복배움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려는 인천교육의 변화 의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하나,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지금 사회 여건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육이 단순히 지식습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일률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전달이 아닌 인성 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 경험을 비추어볼 때 모든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며, 소통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현장에는 학생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인천교육은 변화를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도약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7월이면 미산초 학생들에게는 급식시설과 다목적강당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영장, 헬스장, 공연장과 같은 주민복지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남은 기간 성공적인 북부교육문화센터 설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위 **14가지** 유형에 대한 공직자 등의 지위·권한 남용

▶ 부정청탁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 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2천만 원 이하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3천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 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품 등 수수 행위유형

이것이 ~
금품 등 수수예요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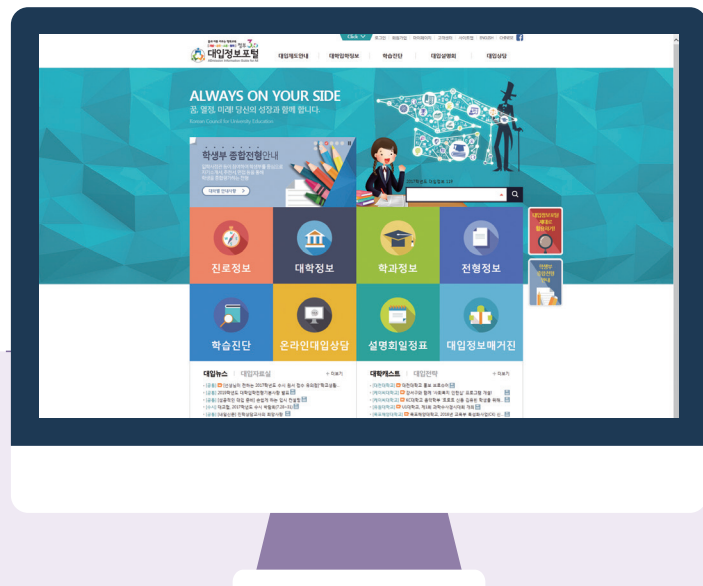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등
- 500만 원 이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활용한 대입 설계 방법



대입정보포털(<http://adiga.kr>)은 여러 대학의 입시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서비스'로, 학생의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학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활용한 대입 설계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진로진학팀 장학사 이 덕 한

- 첫째, 대입정보포털의 기본적인 대학정보와 전형정보는 로그인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나, 입시결과와 나의 성적분석, 온라인상담 등 심층적인 대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둘째, 진로목표에 따른 '진로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정보>진로정보>직업분류, 적성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셋째, 나의 진로와 연관된 '학과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정보>학과정보>관련학과를 클릭하면 학과정보로 이동합니다.
- 넷째, 나에게 맞는 '전형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정보>전형정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나만의 '학습진단'을 통해 성취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입포털>학습진단>성적관리, 성적분석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 학생부 교과조합 등을 확인하고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여섯째, 나에게 맞는 전형 설계를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대입정보포털>대입상담>온라인대입상담>상담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고교의 대입상담교사단(10년 이상의 진학지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이 온라인대입상담과 전화상담(☎1600-1615)을 통해 대입상담을 지원합니다.
- 일곱째,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나만의 대입 설계 로드맵을 만들어 보세요.



끝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현재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나의 다짐을 작성해봅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간계획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활용계획을 세워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면 각자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기자단을 만나다



다른 학교에선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기 위해 인천시의 청소년들이 기자로 변신했다. 무감독 시험 제도부터 사랑으로 세운 베트남 희망학교 소식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제물포고 무감독 시험

제물포고 2학년 이강민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는 기성세대 혹은 젊은 세대들의 고정관념이 고착화된 이유도 크지만 옆 친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내가 목표로 설정한 대학,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누구나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시험장 감독 제도’이다. 매년 11월에 치러지는 대학 수능능력시험만 보아도 부정행위로 적발돼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된 이들이 허다하다. 치열한 입시경쟁,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즉 내신시험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감시하는 선생님 한 분으로도 모자라 학부모 감독까지 두어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이것은 공정한 시험이 치러지고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그런데 인천의 모 학교는 시험감독 선생님 없이 시험을 선서만으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학생들 간의 성적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을 나와야 성공

선서

무감독 시험은 양심을 키우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감독 시험의 정신을 생명으로 압니다.

양심은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인천의 ‘제물포 고등학교’이다. 6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물포고등학교(이하 제고)는 시험감독 없이 시험을 치른다. 무감독 시험은 63년째 이어오고 있는 제고의 전통인데, 학생들은 시험 시작에 앞서 양심과 명예를 지키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시작한다.

시험 담당 선생님은 학생들의 선서와 구호 제창이 끝나면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시험 종료 직전 다시 교실로 돌아와 답안지를 회수하고 시험을 마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시전쟁 속에서 어떻게 무감독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

1954년 개교 당시 초대 교장故길영희 선생은 오랫동안 결심해 온 교육 계획 하나를 실천에 옮기기로 한다. 이 계획은 바로 “감독 교사 없이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보게 하자”이다. 이후 감독 없이 시행된 1956년 첫 시험에서 569명의 전교생 중 53명이 낙제점을 받았고 길영희 선생은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점수가 문제가 아니다. 양심을 지키는 교육이다. 나는 여러분들 같은 학생을 만난 것이 매우 기쁘다.” 이후 이 학생들은 학비를 면제받았고 다음 학기에 치른 시험에 모두 통과했는데 ‘학식은 사회의 등불이자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다’라는 이 학교의 교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대학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내신 성적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무감독 시험은 존폐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학부모, 학생, 교사가 뜻을 모아 전통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잠깐의 실수로 부정행위를 한 학생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제고 동문회는 무감독시험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 이는 제고에서 시험 전 외치는 구호이다. 그들이 ‘감독관 없이’ 쌓아 올린 60년의 양심과 전통만은 많은 이들이 꼭 ‘커녕’해가길 기대한다.



“

한푼 두푼, 용돈 아껴 세운 베트남 희망학교

명신여고 2학년 유슬아

● 6월 16일, 명신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베트남 다이푸 지역에 제3호 희망 학교 건립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은 용돈으로 모금운동을 진행하였다. 모금운동의 이름은 ‘베트남 희망학교 짓기-부이부이 캠페인’으로 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와 굿네이버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캠페인이다. 부이부이는 베트남어로 ‘기쁜’이라는 뜻으로 모금운동으로 모여진 성금으로 지어진 학교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기쁜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성금은 각 학급에 비치되었던 모금함에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차곡차곡 채워졌다. 이번 뜻 깊은 활동을 통해 명신여고 학생들이 세계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에 더 관심 갖길 바라고 또한 나눔의 가치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서도 이 가치를 잊지 않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명신여고 학생들뿐만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가요제

만수고 2학년 김민호

● “내가 알던 내가 아니!”

인천 만수고(교장 이해경)는 7월 14일 (목) 5, 6, 7교시에 만수가요제&만수고 향상 음악회를 실시하였다. 원래는 만수가요제와 만수고 향상 음악회를 따로 실시하였는데 이번에는 같이 실시하여 만수고 학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였다. 수많은 학생들이 가요제에 나와 자신들의 끼를 뽐냈고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 자신들의 음악적 역량을 뽐냈다. 힙합, 발라드, 팝송 등등 수많은 노래들이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적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색소폰, 비올라, 하모니카 등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할 악기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출중한 실력을 뽐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여서 그런지 더욱 재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 자신들의 역량을 뽐내고 순위를 매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1등은 위성준, 편도경, 오신영 학생의 'shot'라는 자작 힙합이었다. 평소 공부만 하여 조용하던 우리 학교가 이 몇몇 친구들 덕분에 열정이 넘치는 학교로 다시 변모했다. 그들의 실력이 부족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열정, 자신감은 우리 자랑스러운 인천 만수고 학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만수 가요제&향상 음악회에 기타 솔로로 참석한 김태현(17)학생은 “학교에서 가요제를 한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연주를 들려준 게 너무 기쁩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리 인천 만수고는 꾸준히 이런 행사를 진행하여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달래줄 전망이다.



어둠 속 빛이 돼줄 스승의 한마디

연수고 2학년 전동인

● 연수고등학교에 2015년 3월 1일자로 새로운 교감선생님이 부임하셨다. 성함은 노수건 선생님이요 지구 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셨다. 언제나 학생들을 살피주시고 따뜻한 인상과 웃음을 지으시는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신다. 기말고사 이후 교감선생님을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었고 많은 좋은 말씀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보고 교직을 선택하셨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꿈을 키워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교감 선생님께서 교직을 선택하시는데 좋은 동기가 되었다고 하셨다. 이와 더불어 교감선생님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전문직 시험을 통해 되는 방법과 현장 근무로 승진을 통해 가산점이 채워지면 교감 자격 연수를 받아서 교감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연수고등학교를 상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터뷰를 하며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다 관찰하시고 또 자부심까지 갖고 계셨다. 연수와 학생들은 특히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모습과 각종 행사에서 사고가 없는 모습 등을 보시고 이를 느꼈다고 하셨다. 인터뷰 내내 학생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전부 지켜봐주시는 선생님의 관심에 놀랐고 또 크나큰 사랑에 감동했다. 학생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도 말씀해주셨다. 그 중 하나는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다. 이로 인해 성적 부진은 물론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으니 학생들이 꼭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관련 직업을 꿈꾸는 나뿐만 아니라 꿈을 가진, 혹은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도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잘 설정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나에겐 힘이 되는 말씀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을 고3 수험생들에게 조언도 잊지 않으셨다.

- 1)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정확히 파악해 대학과 전공학과 정하기
- 2) 담임선생님과 상담
- 3)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능 공부하기
- 4) 대학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수하기와 같이 매우 실용적인 정보들을 많이 주셨다.

올해로 30년 째 교직 생활을 하신 노수건 교감선생님은 오랜 경력만큼이나 학생에 대한 애정이 매우 강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연수고등학교에 이런 교감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매우 자랑스러웠고 다른 친구들도 이런 선생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지난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 대사령부에서 오전 제2연평해전에 관한 14주년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2연평해전이란 14년 전인 2002년에 서해 NLL을 북한 경비정 2척이 침범하여 기습 도발을 한 것에 대해 교전을 벌인 사건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고등학교에서는 제14주기故윤영하 소령에 대한 추모식이 진행되었다.故윤영하 소령의 모교가 송도고등학교이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전교생과 내빈들은 오전부터 고인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헌화를 한 후 조영히 묵념하였다. 송도고등학교에서는 그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본받기 위해 매년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시에 참수리 357호의 정장을 맡은故윤 소령은 북한의 30분간의 교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치열한 교전 끝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故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인 윤두호 씨는 “아들이 해군에서 더 성장하길 바랐는데 자신보다 먼저

“ 제2연평해전의 아픔, 14주기를 맞이하다

학익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예원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며, 여전히 눈만 뜨면 아들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또한 송도고 재학 당시 고인의 화학 과목 선생님을 맡았던 남태우 교사는 “영하는 참을성이 정말 강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고인의 해군사관학교 50기 동기회장인 최창묵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맡은 일은 모두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이 강한 친구였다.”며 “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본받으려고 한다. 영하가 많이 보고싶다.”고 말해 모두의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은 숭고한 참수리정 여섯 용사의 희생을 다룬 영화로, 600만 관객을 돌파하여 그들의 희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제2연평해전의 14주기를 기리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본받아야한다.



● 최근에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을 맞으면서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량이 늘고 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고카페인 음료를 평소보다 더 섭취하는 이유는 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적당히 마시면 활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고 만다.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음료들의 카페인 함량을 비교해보았을 때, 더 진한 커피우유는 한 팩 당 237mg, 카페라테는 90mg, 레드불은 62.5mg, 그리고 서울커피우유는 43mg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누피 더 진한 커피우유’는 500ml 기준으로 카페인인 237mg나 들어가 있는데 몸무게 50kg 청소년 기준으로 일일 카페인 권장 섭취량이 125mg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권장량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인 것이다. 이러한 음료들을 마신 청소년들은 어지러움 증상과 복부 통증 등 여러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를 통해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될까? 우선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뇌를 각성시키며,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병을 유발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카페인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의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 모두의 올림픽 정신

인천대건고등학교 2학년 최형준

● 올여름 더위만큼 화끈했던 리우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여러 개의 메달을 목에 건 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다. 그리고 성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주목받는 선수들도 있다. 태권도 남자 -68kg급에 출전한 이대훈은 8강전에서 요르단 아흐마드 아부가우시에게 8:11로 패하자 그의 손을 들어주며 승리를 축하해주었다. 육상 여자 5000m 예선전에서는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이 미국의 애비 다고스티노와 부딪혀 두 선수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고스티노는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햄블린을 격려하며 경기를 완주했고 결승선을 통과한 두 선수는 서로 부둥켜안고 격려했다. 이들은 승부를 떠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올림픽정신’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올림픽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다. 과연 올림픽정신이 선수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일부 누리꾼들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수들에게 악성댓글과 폭언을 퍼부었다. 물론 올림픽은 경쟁이기 때문에 성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성적이 선수들의 노력을 모두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기 위해 했던 노력만으로도 인정받아 마땅하고 누구도 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은 모두의 축제다. 선수들이 경쟁을 떠난 올림픽정신을 보여줬듯 우리도 결과를 떠나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올림픽정신으로 더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학교노동인권교육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전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하인호**



노동인권교육 전성시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가 만들어지고 「뚝뚝,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를 처음 펴낸 것이 2005년이였다. 인천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8년이였다. 그 후 10년 넘게 노동인권교육은 편향적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학교에서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10년이 지난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활짝 꽃을 피운 것처럼 보인다. 진보 교육감의 당선 이후 여러 시도교육청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개설하였다. 전교조 시도지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단체 협약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기도 하였다.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능을 마친 일반계 고등학교 혹은 일부 중학교에서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이 포함된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발행하였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중학생용 「노동인권」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시교육청의 움직임이 부족한 것은 매우 아쉽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14년부터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관심있는 단체들과의 지역 간담회를 열고, 강사단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천 지역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모임’에선 2016년 1학기 말부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은 학교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청소년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지자체와 교육청,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선을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돌려보면 노동인권교육의 현실은 아직 매우 척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련 권리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에 불과하였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3%에 머물렀다.

한편 노동이 학생들에게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현재 노동하거나 노동했던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29.1%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노동자다. 또한, 대부분 학생들은 그 자신이 노동자의 삶을 살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살아갈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열망하는 감수성을 키우며,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사회에 진출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반드시 ‘권리’와 ‘피해보상’ 등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시민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로서의 권리교육(노동인권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의 자동차 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다 쓰러져 아직도 의식불명인 민재와 그 동료들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미리 알았다면 조금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얼까? 행복배움학교

어떨까? 혁신학교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에서 확인하세요!

일 시 2016. 11. 26.(토) 10:00 ~ 16:00

장 소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보건대학 건물
(인천 연수구 소재)

주 요 내 용 개회식, 문화공연, 기조 강연, 영상 보고, 주제 발제 등
주제 발제 (6개 주제)

학교운영, 교육과정, 수업(평가), 생활교육, 학부모 학교 참여 등

문 의 TEL : 032)420-8228 / URL : www.ice.go.kr

※ 일정 ·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가을

2016 Vol.7
www.ice.go.kr

교육이슈

학부모의 눈

놀이밥

놀이가 공부되는
행복한 학습 마당

진학 TIP

'어디가'를 활용한
대입 설계 방법

호기심?



1학년 '우리나라' 바깥놀이 수업.
조상들이 귀하게 여겼던 똥. 강아지똥 그림책을 함께 읽고
'귀한 똥! 멋진 똥! 전시회' 관람이 한창입니다.

• 글: 동수초 교사 신현주
• 사진: 교육홍보팀 주무관 이예슬



즐거운 배움이 있는

인천학생 과학관

개 관

오전 10시~ 오후 5시

※ 휴관: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운영 프로그램

- 1일과학탐구교실 / 자유학기제 과학진로 프로그램
- 무한상상실 / 주말과학체험마당
- 과학의 날 / 어린이날 기념 특별 행사
- 천체투영실 올돔 3D 영상 상영
- 가족천체관측교실 / 별밤음악회
- 특별 과학해설 프로그램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